

##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송 준 현

백 용 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2차 분리-개별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적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SEM)을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개별화는 공적자의식과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의존성 우울취약성과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리-개별화는 공적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하여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았으며, 거부민감성과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수준은 높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아도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시사점을 대상관계이론에 기반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2차 분리-개별화, 의존성 우울취약성, 대상관계이론

\* 본 연구는 2017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백용매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E-mail: ymbaik@cu.ac.kr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대인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가족 및 또래와 관계를 하였지만, 대학생 시기에는 더 넓은 활동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Erikson, 1959) 부모에게 의존하고 수동적으로 관계를 하던 청소년기의 자아<sup>1)</sup>는 개별성<sup>2)</sup>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계하는 자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Blos, 1979). 그러나 개별성을 성취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된 청소년은 주체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곽현주, 김현주, 2013; 이시은, 2008; Blatt & Shichman, 1983).

우울은 정서적으로 슬픔, 죄책감, 초조, 무력감, 흥미 상실을 보이며, 동기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자기비난을 하며, 행동이 위축되고, 식욕과 수면욕 등 신체적 증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Beck, 1967)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경험이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한 2,277명 중 우울이 원인인 사람이 655명으로 약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4), 이것은 우울이 자살과 높은 관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시기는 우울의 위험이 타 연령대에 비해 3~4배 정도 더 높다는 통계결과(보건복지부, 2016)는 대학생 시기의 우울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의 우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발달적 기원, 성격 특징, 임상적 양상에 따라 우울을 구분한(Beck, 1983; Blatt, 1974) 우울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연구해야 한다. 우울취약성은 우울에 대해 증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울한 사람이 나타내는 증상의 이질성, 높은 재발률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Duggan, 1997; Gotlib, Lewinsohn, & Seeley, 1995)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우울취약성은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며, 특정한 양상의 우울을 활성화시키고, 우울이 지속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권호인, 2009; 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Andersen, Spielman, & Bargh, 1992; Blatt & Bers, 1993; Lewinson, Steinmetz, Larson, & Franklin, 1981).

우울취약성은 주로 인지-대인관계 이론(이지연, 임성문, 2006)과 대상관계이론(Blatt, 1990)에서 연구되어 왔다. 인지-대인관계 모형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확신시키는 반응을 주변에서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만들어 우울한 사람을 더 피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울한 사람이 우울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본다(Coyne, 1976; Hammen,

- 1) 자기(self)가 나와 관계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표상인 반면, 자아(ego)는 자각과 기억, 인지, 정서, 행동을 통합 및 조직하는 일련의 정신과정을 의미한다(Hamilton, 1999/2007).
- 2) 개별성(individuality)은 개인이 타인과의 공생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및 타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분리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Greenberg & Mitchell, 1983).

1991).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생애 초기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에 감정이 부착되어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Greenberg & Mitchell, 1983) 한 개인의 심리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울에 대한 취약성이 생긴 것으로 본다(Klein, 193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대인관계이론과 대상관계적인 관점을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통합한 관점(Blatt, 1990)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대상관계이론은 대인관계의 역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장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윤순임, 1995) 우울취약성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제이다.

Blatt(1990)은 우울취약성을 자기비난적 우울취약성과 의존성 우울취약성으로 구분하였다. 자기비난적 우울취약성은 대상에 대한 나쁜 표상과 좋은 표상이 통합된 이후, 자신이 대상의 나쁜 표상에게 가졌던 적대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울을 나타내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죄책감에 따른 실패감, 무력감, 열등감, 무가치감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의존성 우울취약성은 자기 및 대상에 대한 표상을 통합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주장성, 현신성, 간접성 및 피착취성을 나타내게 한다(Blatt, 1997, 2004). 의존성 우울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과도한 의존성은 자신에게 속해있던 나쁜 표상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로 투사한 후, 다시 재통합하지 못하여 자기감이 축소되고 빈곤해지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다(Garland, 2001; Gorkin, 1987). 즉,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비난적 우울취약성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대상관계가 더 손상되어 공생관계에 머문 상태라고 볼 수 있다(김인경, 1993; 장근영, 윤진, 1992; Blatt & Lerner, 1983).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대상관계의 수준이 더 손상되어 공생관계에 머문 상태의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공생관계는 분리-개별화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리-개별화란 자신과 타인을 독립된 객체로서 구분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져야 대인관계에서 자아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할 수 있으며, 타인의 승인, 사랑, 결속을 얻기 위해 본래 자기의 통합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관계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율성이 부족하여 타인과 융합하려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산다(한영숙, 2007; Bowen, 1978).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에는 이것이 영유아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Mahler, Pine, & Bergman, 1975), 이후 후기 청소년기에 2차 분리-개별화가 나타나며 이 시기의 분리-개별화의 성취수준 또한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los, 1979). 하지만 2차 분리-개별화 시기의 영향이 개인의 심리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차 분리-개별화 시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은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인 투사적 동일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사적 동일시란 내면에 존재하는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외부로 투사한

후 이것을 통제하여 다시 재내면화 하려는 시도를 말한다(Klein, 1946). 이 과정에서 투사되었던 자기표상이 통합되면 자기 및 타인에 대해 안정된 표상을 갖게 되어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Hamilton, 1999/2007). 이러한 투사적 동일시는 1차 분리-개별화 시기에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성인기의 퇴행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Gorkin, 1987). 즉, 2차 분리-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하면 성인기에도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타인과 부정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공격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선정하였다.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에서 투사자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부분을 외부대상 안에 넣음으로써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Clarkson & Nuttall, 2000), 이것은 투사자가 자신과 외부 대상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나타나는 시도이다(Rosenfeld, 1987). 즉, 투사적 동일시는 공생과 융합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투사적 동일시를 시도하는 사람은 먼저 투사할 수 있는 외부대상이 필요하므로 주의의 초점이 외부로 향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자신을 거부하고 좌절시키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Fenigstein, 1992; Zajonc, 1965). 한편,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나쁜 부분’을 투사하여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상의 ‘좋은 부분’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김진숙, 2009).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및 대상에 대한 표상

이 분열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대상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고갈된 내적 세계를 채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사자는 타인과의 관계에 속박되어 타인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는 우울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낮을 때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증가하는 과정은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낮으면 공격자의식이 증가하는 과정은 중간대상을 통한 자기위로 과정의 실패로 설명된다. 한 개인은 중요한 타인에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별성을 성취해야 하는데, 이 때 분리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중간대상을 만든 후 내적 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위로한다(Glassman, 1989). 하지만 부모로부터 좋은 대상경험을 내면화하지 못한 경우 가용한 내적 자원이 부족하여 중간대상을 통한 위로받기는 실패하게 된다. 그 결과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때 자기위로를 할 수 없게 되어 부정적인 자기가 형성되고(김진숙, 2000; Mikulincer & Shaver, 2008), 외부 대상물에만 의존하면서 스트레스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Grotstein, 1987; William, Jamie, & Kenneth, 199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타인을 잘 의식하고,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분리-개별화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시은, 2008; 이은진, 이나령, 이지연, 2015; Campbell et al., 1996).

이러한 결과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적자의식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적자의식은 거부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상관계의 발달과정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적인 표상은 타인에게 투사된다(Ogden, 1982).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이 타인에게 투사되면 투사자는 투사대상자에게 박해받는 느낌을 받게 되어(Klein, 1946)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여 공생의 욕구를 좌절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로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으면 거부에 민감해지고 분리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김효숙, 2010; 최연숙, 홍혜영, 2016; Stuart & Sundeen, 1987), 공적자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연구가 있다(기인숙, 2009; 전영주, 박기환, 2011). 이 같은 결과는 분리-개별화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표상이 거부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이 과정에서 공적자의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타인에게 투사된 부정적인 표상은 다시 조절하여 재내면화 시켜주는 대상경험이 없다면 자신에게 통합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Bion, 1955), 이 상태에서는 타인에 대한 표상이 분열되어 정서적으로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된다(김순진, 1998; Mahler, 1975). 이 과정은 긍정적인 대상관계 경험이 부족하면 타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느끼고(김순진, 1998), 정서표현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Mikulincer & Shaver, 2008)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공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수용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정현희, 정미정, 2002; 한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Gross & John, 2003)는 공적자의식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도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분리-개별화와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이 보이는 수용과 거부에 대한 양가감정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정지혜, 정남운, 2015; 최연숙, 홍혜영, 2016)는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선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의존성 우울취약성은 대상관계의 발달과정에서 공적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과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공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보이는 관계욕구는 관계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우울을 느끼게 하고(조아라, 김영미, 2000;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Kunda, 2000),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거부로 지각하거나 왜곡하여 우울해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권호인, 함병주, 백종우, 서신영, 권정혜, 2010; 정신아, 2013; Joiner, Alfano, & Metalsky, 1992; Joiner & Metalsky, 2001). 또한 정서적 갈등이 지속될수록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여(Emmons & Colby, 1995) 점차 우울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견해(정지혜, 정남운, 2015; 최연숙, 홍혜영, 2016; Mongrain & Zuroff, 1994)는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

성이 우울취약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분리-개별화가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상관계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공적자의식과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과 같은 요인들이 매개하여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하나의 연구 패러다임 내에서 경험적으로 직접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대상관계이론에 입각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제시한 요인들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의 검증 과정에서 대학생을 남녀 별로 구분하여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 남성은 개별성, 여성은 관계의 맥락에서 대인관계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상관계이론의 관점(Chodorow, 1978; Jack, 1991)과 우울을 보이는 내용과 과정에서 남녀차이가 존재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은 관계에서의 갈등이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전경숙, 박소현, 조선희, 2012; Kessier, 2003)는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의존성 우울취약성과 관련되는 변인들의 구조관계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우울한 개인의 심리내적인 구조가 대상관계의 발달 과정에서 의존욕구, 분리-개별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으로 의존성 우울취약성을 조망함으로써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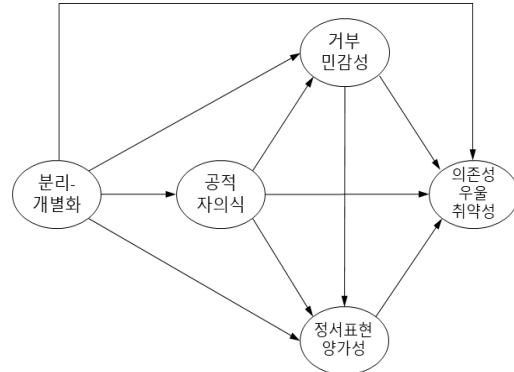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어떻게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지, 2차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과 공적자의식, 정서표현양가성이 어떻게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울한 사람들의 투사적 동일시를 이해하는 것은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투사적 동일시를 시도하는 환자들이 치료자들에게 자주 역전이 반응을 유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Richards, 2000). 치료과정에서 치료자가 투사적 동일시를 인식하지 못하면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놓치고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쉬우며(Mancillas, 2006), 치료자의 치료적 능력을 훼손하거나(McWilliams, 1994), 심지어는 심리치료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Young-Eisendrach,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의존성 우울취약성을 대상관계이론의 투사적 동일시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의존성 우울을 보이는 환자가 치료자들의 역전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7년 5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대구 경북 소재 대학의 20~30대 대학생 378명을 편의표집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현장에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40명의 자료를 제외한 3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남자는 142명(42%), 여자는 196명(58%)이었으며, 1학년은 110명(32.5%), 2학년은 102명(30.2%), 3학년은 39명(11.5%), 4학년은 87명(25.7%)이었다.

### 측정도구

#### 분리-개별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이 만든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 Individuation Scale: SIS)는 총 56문항으로 공생관계-일차적 불안에 속하는 분리불안, 결속불안, 공생관계 요인과 가(假)독립-개별화에 속하는 건강한 분리, 의존부정, 자기몰입, 거부기대, 친구와의 결속과 관련된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근영과 윤진(1992), 김인경(1993)이 번안한 후 박경순(1997)이 성인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박경순(1997)과 박부형(2000)이 상관 값이 낮은 22문항을 제거하여 공생과 개별화 요인으로 축소한 3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하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도록 역변환과정을

거쳤다. 장근영과 윤진(1992)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3, 김인경(1993)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였다.

#### 공격자의식

Fenigstein(1975)이 제작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는 총 22문항으로 공격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사적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사회불안(social anxiety)에 대해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eier와 Carver(1980)가 개정한 것을 정승아와 오경자(2005)가 번안한 자의식 척도 중 공격자의식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으면 타인이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신의 외적인 측면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승아와 오경자(2005) 연구에서의 공격자의식 척도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이었다.

#### 거부민감성

Downey와 Feldman(1996)이 제작한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는 성인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타인이 자신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것에 대한 예상과 불안을 6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한 상황마다 결과에 대한 불안과 수용에 대한 기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복동(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거부민감성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먼저, 각각의 상황에서 수용기대를 역채점 한 후 이 점수와 거부불안 점수를 곱한다. 그 후

곱하여 나온 18개 상황 값을 모두 합하여 18로 나눈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Downey와 Feldman(1996)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이었으며, 이복동(2002)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정서표현양가성

King과 Emmons(1990)이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측정하는 25문항으로 구성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혜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 및 수정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4문항을 제거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혜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의존성 우울취약성

Blatt, D'Afflitti와 Quinlan(1976)이 개발한 우울취약성 척도(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는 관계의 악화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로 작용하는 '자기비난적'요인,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이 우울로 작용하는 '의존성'요인, 자신의 자원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책임감, 자율성, 만족감을 나타내는 '효능감'요인에 대해 7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재임(1996)의 연구에서 요인 분

석한 것을 토대로 김현진(2002)이 다시 요인 분석한 취약성 척도 중 연구의 목적에 맞는 의존성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조재임(1996) 연구에서의 의존성에 대한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김현진(2002)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를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검증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리-개별화는 하위변인이 있지만 원 척도에 비해 요인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모형의 적합도를 저해하였으므로, 4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여 요인 적재치의 평균이 비슷하도록 문항을 할당하였으며, 공적자의식과 거부민감성, 의존성 우울취약성은 여러 개의 문항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므로 각각 3개, 5개, 6개로 구성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및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인들 간의 잠재평균 및 구조적 관계가 남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 집단 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먼저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했으며, 분산팽창지수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기준수치인 10 보다 작고 공차한계(tolerance)도 기준수치인 .1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가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 측정타당성 검증

측정변인들의 구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chi^2=384.786$ ,  $df=160$ ,  $CFI=.946$ ,  $TLI=.936$ ,  $RMSEA=.065$ [90% CI:

.056~.073]로 양호한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결과는 그림 2와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 및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변인들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71~.92로 수용 가능했으며, 임계비는 모두 기준 수치인 1.97보다 컸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 또한 AVE값은 각각의 변인이 모두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1998)이 제시한 .5를 상회하였으며, 개념신뢰도의 값도 .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각 변인의 상관관계 또한 .80을 넘지 않으므로 변별타당도가 확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다중공선성

|           | 분리-<br>개별화 | 공적<br>자의식 | 거부<br>민감성 | 정서표현<br>양가성 | 의존성<br>우울취약성 | 왜도   | 첨도   | VIF | tolerance |
|-----------|------------|-----------|-----------|-------------|--------------|------|------|-----|-----------|
| 분리-개별화    | 1          |           |           |             |              | -.03 | -.07 | .57 | 1.76      |
| 공적자의식     | -.41**     | 1         |           |             |              | -.42 | .78  | .75 | 1.34      |
| 거부민감성     | -.51**     | .35**     | 1         |             |              | -.01 | .32  | .68 | 1.48      |
| 정서표현양가성   | -.60**     | .47**     | .50**     | 1           |              | -.30 | .21  | .55 | 1.83      |
| 의존성 우울취약성 | -.30**     | .59**     | .35**     | .55**       | 1            | -.04 | .30  | -   | -         |

\*\* $p<.01$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          | $\chi^2$ | df  | CFI  | TLI  | RMSEA[90% CI]   |
|----------|----------|-----|------|------|-----------------|
| CFA모형적합도 | 384.786  | 160 | .946 | .936 | .065[.056~.0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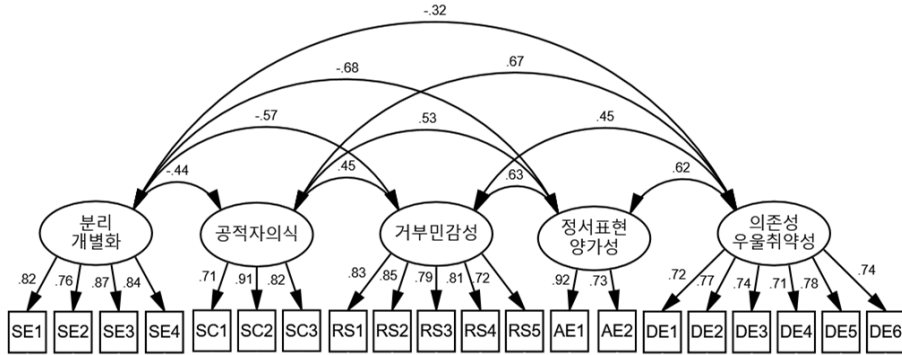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요인값

| 잠재변수      | 측정변수 | 표준화계수  | C.R.     | AVE | 개념 신뢰도 |
|-----------|------|--------|----------|-----|--------|
| 분리-개별화    | SE1  | .82*** | 17.65*** | .68 | .96    |
|           | SE2  | .76*** | 15.81*** |     |        |
|           | SE3  | .87*** | 18.99*** |     |        |
|           | SE4  | .84*** | fix      |     |        |
| 공적자의식     | SC1  | .71*** | 17.99*** | .67 | .92    |
|           | SC2  | .91*** | 14.09*** |     |        |
|           | SC3  | .82*** | fix      |     |        |
| 거부민감성     | RS1  | .83*** | 14.65*** | .64 | .94    |
|           | RS2  | .85*** | 15.04*** |     |        |
|           | RS3  | .79*** | 13.93*** |     |        |
|           | RS4  | .81*** | 14.29*** |     |        |
|           | RS5  | .72*** | fix      |     |        |
| 정서표현양가성   | AE1  | .92**  | 14.32*** | .69 | .84    |
|           | AE2  | .73*** | fix      |     |        |
| 의존성-우울취약성 | DE1  | .72*** | 12.90*** | .55 | .94    |
|           | DE2  | .77*** | 13.70*** |     |        |
|           | DE3  | .74*** | 13.29*** |     |        |
|           | DE4  | .71*** | 12.67*** |     |        |
|           | DE5  | .78*** | 13.98*** |     |        |
|           | DE6  | .74*** | fix      |     |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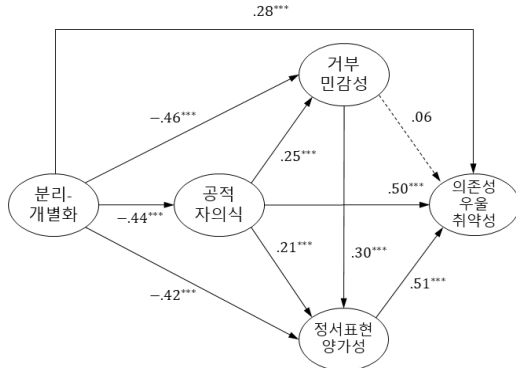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및 수정모형 제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384.786$ ,  $df = 160$ ,  $CFI = .946$ ,  $TLI = .936$ ,  $RMSEA = .065$ 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구성한 후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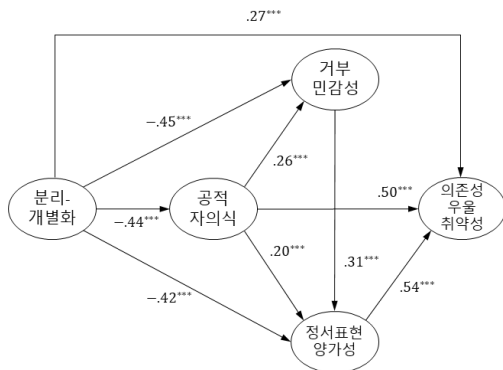


그림 4. 수정된 최종모형

표 4. 연구모형 및 수정모형 비교

|      | $\chi^2$ | $df$ | CFI  | TLI  | RMSEA | $\Delta\chi^2$ |
|------|----------|------|------|------|-------|----------------|
| 연구모형 | 384.786  | 160  | .946 | .936 | .065  | -              |
| 수정모형 | 385.700  | 161  | .946 | .936 | .064  | .91            |

과  $\chi^2 = 385.700$ ,  $df = 161$ ,  $CFI = .946$ ,  $TLI = .936$ ,  $RMSEA = .064$ 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elta\chi^2 = .91$ ,  $\Delta df = 1$ ,  $p > .05$ ) 따라서 최종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결과는 그림 4와 표 4에 제시하였다.

### 수정모형 매개검증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생성한 후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표본에서 반복적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Precher & Hayes, 2008).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모든 간접효과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개별화는 거부민감성( $\beta = -.45$ ,  $p < .01$ )과 정서표현양가성( $\beta = -.42$ ,  $p < .01$ ), 의존성 우울취약성( $\beta = .27$ ,  $p < .01$ )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리-개별화는 공적자의식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거부민감성( $\beta = -.11$ ,  $p < .01$ ), 정서표현양가성( $\beta = -.09$ ,  $p < .01$ ), 의존성 우울취약성( $\beta = -.22$ ,  $p < .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리-개별화는 공적자의식과 거부민감성,

표 5. 간접효과 경로

| 경로         |  | direct effects | indirect effects<br>(95% CI) |
|------------|--|----------------|------------------------------|
| 분리-<br>개별화 | → 공적<br>자의식 → 거부<br>민감성                              | -.45**         | -.11**<br>(-.29~-.09)        |
| 분리-<br>개별화 | → 공적<br>자의식 → 정서표현<br>양가성                            | -.42**         | -.09**<br>(-.01~-.10)        |
| 분리-<br>개별화 | → 공적<br>자의식 → 의존성<br>우울취약성                           | .27**          | -.22***<br>(-.46~-.21)       |
| 분리-<br>개별화 | → 공적<br>자의식 → 거부<br>민감성 → 정서표현<br>양가성 → 의존성<br>우울취약성 | .27**          | -.02***<br>(-.05~-.01)       |

\*\*p<.01, \*\*\*p<.001

정서표현양가성을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 p<.001$ ).

억제효과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서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상관관계가 부적 관계인데 반해 구조모형에서의 관계는 정적 관계로 나타났으므로 억제효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변수인 공적자의식과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이 억제효과를 갖는지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매개모형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없을 때의 두 변인의 설명력은 매개변인이 투입되면 더 줄어든다. 그러나 오히려 매개변인을 투입함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설명력이 증가하거나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억제효과이다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Tzelgov &

Henik, 1991).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억제변인 외에 고려하지 못한 다른 변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과 같이 억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매개변인을 각 단계마다 차례대로 추가하여 총 효과에 비해 직접효과를 더 크게 만들거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투입한 3단계에서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영향력이 총 효과의 반대로 나타나면서 두 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따라서 4단계로 다른 매개변수인 공적자의식과 거부민감성을 제외한 후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직접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Delta\beta=-.05$ ),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 이 결과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관계에서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억제효과 검증

|      |        | 변 인 |           |   |           |                                 | direct effect |
|------|--------|-----|-----------|---|-----------|---------------------------------|---------------|
| 투입 전 | 분리-개별화 |     |           |   |           | 의존성<br>우울취약성                    | -.32***       |
| 1단계  | 분리-개별화 | →   | 공적<br>자의식 | → |           | 의존성<br>우울취약성                    | -.03          |
| 2단계  | 분리-개별화 | →   | 공적<br>자의식 | → | 거부<br>민감성 | →<br>의존성<br>우울취약성               | .07           |
| 3단계  | 분리-개별화 | →   | 공적<br>자의식 | → | 거부<br>민감성 | → 정서표현<br>양가성 →<br>의존성<br>우울취약성 | .27***        |
| 4단계  | 분리-개별화 | →   |           |   |           | → 정서표현<br>양가성<br>의존성<br>우울취약성   | .22*          |

\*p<.05, \*\*\*p<.001

남녀집단 차이분석

다음으로 잠재변인의 평균 및 변인 간의 경로에서 남녀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 집단 간 잠재변인의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은 분리-개별화가 평균 -.14, 거부민감성의 평균은 .14,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평균은 .14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효과크기는 분리-개별화가 -.26, 거부민감성이 .24,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26 이었다. 다음으로 Cohen의 효과크기(*d*)를 확인한 결과 남녀 간 분리-개별화와 거부민감성, 의존성 우울취약성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는 .20이하 일 때 약한 효과크기, .50일 때 중간 효과크기, .80이상 일 때 큰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표 7).

이어서 남녀 두 집단 사이에서 경로계수 간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모든 경로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표준화 회귀계수에서 남성 집단은 .17, 여성 집단은 .43으로 나타나 억제효과는 여성 집단에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8).

다집단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경로에

표 7. 잠재평균비교

| 변 인       | 남성 | 여성    | SE  | 효과 크기 |
|-----------|----|-------|-----|-------|
| 분리-개별화    | 0  | -.14* | .06 | -.26  |
| 공적자의식     | 0  | .08   | .07 | .12   |
| 거부민감성     | 0  | .14*  | .07 | .24   |
| 정서표현 양가성  | 0  | .04   | .06 | .08   |
| 의존성 우울취약성 | 0  | .14*  | .06 | .26   |

\*p<.05

표 8. 남녀 집단별 모수추정치 및 경로차이

|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   |           | B    |         | $\beta$ |         | df | $\Delta\chi^2$ | TLI   |
|---------------|---|-----------|------|---------|---------|---------|----|----------------|-------|
|               |   |           | 남성   | 여성      |         |         |    |                |       |
| 분리-개별화        | → | 거부민감성     | -.47 | -.41*** | -.58    | -.50*** | 1  | .70            | 0     |
| 분리-개별화        | → | 공적자의식     | -.39 | -.37*** | -.61    | -.48*** | 1  | 2.56           | 0     |
| 분리-개별화        | → | 정서표현양가성   | -.43 | -.42*** | -.41    | -.41*** | 1  | .04            | 0     |
| 분리-개별화        | → | 의존성 우울취약성 | .17  | .17     | .45     | .43***  | 1  | 3.52           | 0     |
| 공적자의식         | → | 거부민감성     | .25  | .23*    | .24     | .25***  | 1  | .01            | 0     |
| 공적자의식         | → | 정서표현양가성   | .22  | .23**   | .14     | .18**   | 1  | .63            | 0     |
| 공적자의식         | → | 의존성 우울취약성 | .38  | .42***  | .45     | .54***  | 1  | .42            | 0     |
| 거부민감성         | → | 정서표현양가성   | .21  | .23*    | .33     | .39***  | 1  | 1.36           | 0     |
| 정서표현양가성       | → | 의존성 우울취약성 | .44  | .47***  | .73     | .69***  | 1  | 2.87           | 0     |
| 모든 경로 제약      |   |           |      |         |         |         | 9  | 10.20          | -.002 |

\*p<.05, \*\*p<.01, \*\*\*p<.001

서 남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집단에서 발견된 정서표현양가성의 억제효과를 통해 남성은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으면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감소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아도 정서표현양가성이 의존성 우울취약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로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2차 분리-개별화 시기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공적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개별화는 공적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의존성 우울취약성과 부적 관계에 있었다. 이 결과는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공적자의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이시은, 2008; Campbell et al., 1996)와 분리-개별화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거부에 민감해진다는 연구(김효숙, 2010; 최연숙, 홍혜영, 2016; 홍다겸, 2014), 대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가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김순진, 1998; 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 Hamilton, 1982)와 일치한다. 또한 분리-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기 내부대상과의 관계를 반복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타인과 실제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해되며(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2012, 황혜자, 유선림, 2005; Klein, 1940),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울 및 불안,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장희숙, 2002; 조화진, 서영석, 2010)와 일치한다. 이 결과들은 분리-개별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성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Hirschfeld et al., 1977)과 타인에 대한 분열된 표상(김순진, 1998)은 공적자의식과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의존성 우울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분리-개별화는 공적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하여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큰 대학생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그 결과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연구결과(이은진, 이나령, 이지연, 2015; Campbell et al., 1996), 지나친 관계의 욕구가 공적자의식을 증가시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이 타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기인숙, 2009; 정승아, 오경자, 2005; Check & Buss, 1981),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최연숙, 홍혜영, 2016),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울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분열 상태에 있다는 연구결과(Hazan & Shaver, 1987)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투사한 후 다시 통제하려고 접근하는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속박되며(김진숙, 2009),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분열된 표상과의 관계에서 갈등하면서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조모형의 검증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은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거부민

감성이 높다고 해서 모두 우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최연숙, 홍혜영, 2016;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와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 우울해진다는 연구결과(Bergevin, 2003)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리-개별화가 성취되지 못했을 때 증가하는 거부민감성은 직접적으로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의 갈등과정을 거쳐야만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분리-개별화 수준이 낮았으며, 거부민감성과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수준은 높았다. 이것은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의 맥락에서 정의할 수 있으며, 남성은 분리를 중심으로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연구(Chodorow, 1978)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대인관계 지향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는 특성이 강하다는 연구(전경숙, 박소현, 조선희, 2012; Baruch, Biener, & Bamett, 1987)와 일치하는 견해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Jack(1991)은 관계 속 자기(self-in-relation)이론을 기반으로 여성의 대인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우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서표현을 억제하지만, 내적으로는 분노와 긴장감을 경험하면서 더 우울해진다고 보았다. 즉, 여성은 거부를 더 잘 지각하고, 거부를 자신에 대한 거부로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거부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 때 남성에게 비해 우울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우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아도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 취약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가진 억제효과는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높아도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Bowlby(1969, 1973, 1977, 1980)는 부모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적절한 양육의 부재로 자기 자신이 부모화(parentified) 되어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켰던 아동이 과도한 개별성을 가지게 되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욕구를 계속 억압하지만, 좋은 대상경험 없이 형성된 개별성은 안정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다. 여성의 경우 부모화의 경험이 많다는 연구결과(신주연, 2003; Abramovitch, Corter, & Lando, 1979; 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away, 1992; Mirkin, Raskin, & Antognini, 1984)와 부모화된 자녀는 '참된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지향적, 과순응적으로 된다는 연구결과(이기학, 신주연, 2003; Olson & Gariti, 1993)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은 부모의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 점차 자아를 형성하여 개별성을 성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부모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동기에는 적응적이고 성숙하며, 개별성이 성취되어 자아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강지희, 최명선, 2008;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발달과정에서 '참된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되어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 속박되고(Olson & Gariti, 1993) 이로 인해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면서 우울해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제언을 하면,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높은 개인은 분리-개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생의 욕구가 있지만,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에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치료적 개입 시에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타인에 대한 표상이 분열되어 있으므로 개입 시에 일관적인 태도로 이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자에게 투사하여 이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치료자는 이들에게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로 일어난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투사적 동일시가 언제, 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이 환자 및 내담자를 이해하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Waska, 2005). 환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적 대상관계를 타자에게 투사한 후 타자에 의해 조절된 대상관계를 재내사하면서 심리적 성장을 한다. 하지만 환자의 투사로 인해 투사대상자가 혼란에 빠진다면 투사대상자는 병리적인 방향으로 투사된 것을 변형하기 때문에 투사자는 재내사 과정에서 심리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Stadter, 1996).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투사적 동일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치료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우울을 보이는 여성이 개별성이 높은 경우에도 정서표현양가성의 수준이 높으면 의존성 우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성이 형성된 맥락을 파악하며 여성의 우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횡단적 연구방법과 설문지



를 통한 자기보고식 자료의 수집은 발달적 관점을 가진 대상관계이론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상관계이론은 생애 초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론(Kernberg, 2004)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생애 초기 경험 및 1차 분리-개별화, 2차 분리-개별화를 포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적자의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공생의 욕구로 나타날 수 있는 의존성 우울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격자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자의식의 다른 측면인 사적자의식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사적자의식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울취약성의 다른 변인인 자기비난적 우울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취약성의 일부분인 의존성 우울취약성만 검증하였으므로 대상관계이론에서 제시한 우울취약성의 다른 측면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수준이 실제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분리-개별화 시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우울이 의존성 우울취약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취약성은 증상과는 구분되는 개념인 만큼(Hollon & Cobb, 1993; Hollon, Evans, & DeRubeis, 1990) 우울취약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분리-개별화가 높아도 여전히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

화가 높을 때 의존성 우울취약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분리-개별화와 의존성 우울취약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가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유추했을 뿐 또 다른 변인의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공격자의식,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선정하였으나, 투사적 동일시는 개인의 심리내적 과정이므로(Waska, 1998)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각 변인들은 서로 간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대다수의 이론가들은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에 이 개념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투사적 동일시는 개인의 내적 환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므로 임상분야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진숙, 2009; Lubbe, 1998).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각 변인도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명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상관계이론의 개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강지희,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

- 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 치료학회지, 11(1), 43-55.
- 곽현주, 김현주 (2013). 한국 대학생의 우울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0(7), 75-98.
- 권호인 (2009).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취약성과 대인관계적 취약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호인, 함병주, 백종우, 서신영, 권정혜 (2010). 우울증 환자의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117-1133.
- 기인숙 (2009).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외모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진 (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동맹, 및 상담중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경 (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 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 대상관계수준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243-1261.
- 김진숙 (2000). 대상관계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137-163.
- 김진숙 (2009). 투사적 동일시의 의미와 치료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765-790.
- 김현진 (2002).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 (2010). 청소년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외현화의 관계 - 정서적 조절과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2), 103-122.
- 박경순 (1997). 결혼갈등과 우울감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부형 (2000).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분리-개별화 수준 및 대상관계 특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보고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4). 2013 자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85-102.
- 윤순임 (1995). 현대 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이기학,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4(3), 421-436.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 (2008). 대학생의 사적 자의식과 공격

- 자의식 하위집단에 따른 분리-개별화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87-1106.
- 이은진, 이나령, 이지연 (2015). 대학생의 성인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공적 자의식, 우울취약성,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9(2), 207-242.
- 이지연, 임성문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969-984.
- 장근영, 윤진 (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157-175.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1), 101-121.
- 전경숙, 박소현, 조선희 (2012). 한국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남녀차이.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4), 296-308.
- 전영주, 박기환 (201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1(2), 59-73.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정신아 (2013). 거절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정남운 (2015).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339-360.
- 정현희, 정미정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조아라, 김영미 (2000). 자의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319-330.
- 조재임 (1996). 우울의 두 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연숙,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4), 295-311.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한영숙 (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2.
- 한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3), 791-816.
- 홍다겸 (2014). 거부민감성향 청소년의 내적표상 재구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애착과 대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67-86.
- 황혜자, 유선림 (2005).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0, 75-93.
- Abramovitch, R., Corter, C., & Lando, B. (1979). Sibling interaction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997-1003.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2), 358-372.
- Andersen, S. M., Spielman, L. A., & Bargh, J. A. (1992). Future-event schemas and certainty about the future: Automaticity in depressives' future-event predi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71), 711-723.
- Baruch, G. K., Biener, L., & Barnett, R. C. (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2(2), 130-136.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rgevin, T. A. (2003). *Approaching rejection sensitivity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predicting romantic maladjustment, targets of romantic attraction and depression in middle adolescence* Ph. D. Dissertation, Concordia University.
- Bion, W. R. (1955). Language and the schizophrenic. *New Directions in Psychoanalysis*, 220-239.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1), 107-157.
- Blatt, S. J. (1990).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ersonality configur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In J. 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pp. 299-33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tt, S. J. (1997). Contributions of psychoanalysis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6(3), 723-752.
- Blatt,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 Bers, S. A. (1993). The sense of self in depression: A psychodynamic perspective. In Z. V. Segal & S. J. Blatt (Eds.), *The self in emotional distress: Cognitive and Psychodynamic Perspectives* (pp. 171-210). New York: Guilford Press.
- Blatt, S. J., & Lerner, H. (1983). Investigations in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object relations and object representations.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al Theories*, 1, 189-249.
- Blatt, S. J., & Shichman, S. (1983). Two primary configurations of psychopathology, *Psychoanalysis & Contemporary Thought*, 6(2), 187-254.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I. Some principles of psychotherapy. The fiftieth Maudsley Lectur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5),

- 421-431.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y,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Press.
- Clarkson, P., & Nuttall, J. (2000). Working with Countertransference. *Psychodynamic Counselling, 6*(3), 359-379.
- Coyne, J. C.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2), 186-193.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Duggan, C. F. (1997). Course and outcome of depression. In A. Honig & H. M. Van praag (Eds.), *Depression: Neurobiological, psychopathological and therapeutic advances* (pp. 31-40). New York: Wiley.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1-171.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Garland, A. (2001). Reclaiming the rubbish: A study of projective mechanisms. *Psychodynamic Counseling, 7*(2), 177-185.
- Glassman, E. J. (1990).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York Universities Press.
- Goglia, L. R., Jurkovic, G. J., Burt, A. M., & Burge-Callaway, K. G. (1992). Generational boundary distortions by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hild-as-parent and child-as-mat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4), 291-299.
- Gorkin, M. (1987). *The uses of countertransference*. Northvale, NJ: Jason Aronson.
- Gotlib, I. H., Lewinsohn, P. M., & Seeley, J. R. (1995). Symptoms versus a diagnosis of depression: Differences in psycho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1), 90-100.
-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Psychoanalysis and Object Relations Theory*. New York: Basic Books.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Grotstein, J. S. (1987). 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on resistance in narcissistic patients. In D. S. Milman & G. D. Goldman (Eds.), *Techniques of working with resistance*. Northvale, NJ: Jason Aronson.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milton, M. (1982). Prediction of the response of depressions to ECT. *Electroconvulsive Therapy: Biological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113-128.
- 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9년도에 출판).
- Hammen, C. L. (1991). The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55-561.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irschfeld, R. M., Klerman, G. L., Gouch, H. G., Barrett, J., Korchin, S. J., & Chodoff, P. (1977). A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6), 610-618.
- Hollon, S. D., & Cobb, R. (1993). Relapse and recurrence in psychopathological perspective. *Psychological Inquiry*, 3, 250-253.
- Hollon, S. D., Evans, M. D., & DeRubeis, R. J. (1990). Cognitive mediation of relapse prevention following treatment for depression: Implication of differential risk. in R. E. Ingram (Ed), *Contemporary psychological approaches to depressio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press.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Jr, T. E., & Metalsky, G. I. (2001).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Delineating a risk factor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 *Psychological Science*, 12(5), 371-378.
- Joiner, T. E., Alfano, M. S., & Metalsky, G. I. (1992) When depression breeds contempt; Reassurance seeking, self-esteem, and rejection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by their roomm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65-173.
- Kernberg, O. (2004). *Contemporary Controversies in Psychoanalytic Theory,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essler, R. C. (2003). Epidemiology of women and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1), 5-13.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1267.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London: Hogarth Press
- Klein, M. (1935). A contribution to the psychogenesis of manic-depressive stat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6, 145-174.
- Klein, M. (1940). Mourning and its relation to manic-depressive stat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1, 125-153.
- Klein, M. (1946).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7, 99-110.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 MIT press.
- Levine, J. B., Green, C. J., &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123-137.
- Lewinsohn, P. M., Steinmetz, J. L., Larson, D. W., & Franklin, J. (1981). Depression-related cognitions: antecedent or consequ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3), 213-219.
- Lubbe, T. (1998). Projective identification fifty years on: A personal view.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24(3), 367-391.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ahler, M. S. (1975).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infantile neurosi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3(2), 327-333.
- Mancillas, A. (2006). Recognizing and utilizing projective identification in brief psychodynamic therapy: A case exampl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4(3), 267-278.
- McWilliams, N. (1994).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acti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53-152.
- Mirkin, M. P., Raskin, P. A., & Antognini, F. C. (1984). Parenting, protecting, preserving: Mission of the adolescent female runaway. *Family Process*, 23(1), 63-74.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47-458.
- Ogden, T. H. (1982). *Projective identification and psychotherapeutic technique*. New York: Jason Aronson.
- Olson, M., & Gariti, P. (1993). Symbolic loss in horizontal relating: Defining the role of parentification in addictive/destructive relationship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5(3), 197-20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ichards, B. M. (2000). Impact upon therapy and the therapist when working with suicidal patients: Some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aspect.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8(3), 325-337.
- Rosenfeld, H., (1987). Body talk: Somatic countertransference. *Psychodynamic Counselling*, 6(3), 451-46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18-2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0). Private and public self-attention, resistance to change, and dissonance re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390-405.
- Stadter, M. (1996). *Object relations brief therapy: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short-term work*. Northvale, NJ: Jason Aronson.
- Stuart, G. W., & Sundeen, S. J. (1987).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3rd ed). StLouis: Mosby.
- Tzelgov, J., & Henik, A. (1991). Suppression situations in psychological research: Definition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9(3), 524-536.
- Waska, R. (2007). The concept of analytic contact: The Kleinian approach to reaching the hard to reach patient. London: Brunner/ Rutledge.
- William, C., Jamie, H. A., & Kenneth, S. R. (1997). Transitional obj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250-255.
- Young-Eisendrath, P. (1997). Jungian constructivism and the value of uncertainty.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42, 637-652.
- Zuroff, D. C., Moskowitz, D. S., & Côté, S. (1999). Dependency, self criticism, interpersonal behaviour and affect: Evolutionary perspectiv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3), 231-250.

원고접수일 : 2017. 10.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7. 11. 12.

게재결정일 : 2018. 01. 08.



##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lf-Consciousness,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Dependent Depressive Vulner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Song, Jun Hyeon**

**Baek, Yong Mae**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mediating effects of variables affecting dependent depression vulnerability in college students in the secondary separation-individualization periods and to verify whether gender differences were present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o achieve this goal, the public self-consciousness,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selected as mediators affecting dependent depression vulnera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paration-individualizatio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ublic self-consciousness,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endent depression vulnerability. Second, public self-consciousness,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dependent depression vulnerability. Third, the level of separation-individualization was lower in women than in men, and the level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endency depression were higher. Lastly, women may present a high dependent depressive vulnerability, even if they have a high level of separation-individu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academic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object relations theory.

*Keywords* : Secondary separation-individuation, Dependent depressive vulnerability, Object relations theory